

광복회 지부조직과 핵심인물에 대하여
-영호남지부를 중심으로-
About the Organization and Key Figures of the
Korea Liberation Party
- Centered on the Yeongnam and Honam Branches -

이 동 언*
Dong-eon Lee

국문요약

광복회가 결성된 1915년은 일제가 한국 식민지배를 위한 무단통치 시스템 구축에 열을 올리는 시점이었다. 광복회는 결성 목적과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강령을 통해 구체화하였다. 또한 1917년 충청도·강원도·전라도 등 7개 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전국에 여관이나 잡화상(상점)을 설립하여 거점으로 하였다. 광복회 조직은 전국 각 도뿐만 아니라 서간도와 북간도까지 확대되었다.

광복회는 1910년대 일제가 헌병경찰제도를 기반으로 폭압적인 무단 통치를 펼친 가운데서도 독립운동 세력을 규합하여 일제 식민지 무단 통치에 저항하며, 민족의 독립을 꾀한 비밀결사였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식민지 무단통치체제를 강력하게 구축해 가는 시점인 1915년 국내에서 비밀결사 광복회가 조직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광복회

<http://doi.org/10.56475/ygsr.2024.29.1.99>

논문투고일 : 2024.04.29. 논문심사일 : 2024.05.23. 게재확정일 : 2024.06.04.

* 선인역사문화연구소 연구소장(E-mail: delee5641@hanmail.net)

Research Director, Sunin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

에는 의병계열, 계몽운동계열, 유학자, 보통 사람을 포함하여 다양한 신분과 계층이 참가하였다. 이들 광복회 참가자들은 일제의 식민통치를 거부하고 민족의 자주성 회복하여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광복회의 투쟁방략은 암살단·주비단·의열단으로 이어졌고, 더 나아가 만주와 러시아 그리고 국내의 무장독립운동단체로 계승 발전되었다. 또한 광복회가 표방한 공회주의 이념은 대한민국임시정부 나아가 대한민국으로 계승·발전되었다.

주제어: 광복회, 지부조직, 핵심인물, 박상진, 채기중, 이병환, 광복단결사대, 주비단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광복회를 계승하다 |
| II. 광복회 독립운동 | V. 맺음말 |
| III. 광복회 지부조직과 핵심인물 | |

I. 머리말

한국독립운동사에서 광복회는 1910년대 대표적인 비밀결사이다. 광복회는 1915년 영남내륙의 중심 도시 대구 달성공원에서 결성된 비밀결사로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단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클 뿐 아니라 1910년대 독립운동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광복회는 1910년대 일제가 헌병경찰제도를 기반으로 폭압적인 무단통치를 펼친 가운데서도 독립운동 세력을 규합하여 일제 식민지 무단통치에 저항하며, 민족의 독립을 꾀한 비밀결사였다. 광복회를 이끈 사람들은 한반도 전역에서 모여든 지사들이었기에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와 중국 만주지역에 이르기까지 일제의 식민지배를

극복하기 위한 자주적인 독립투쟁을 전개하였다.

광복회에는 의병계열 참가자, 계몽운동계열 참가자, 유학자, 보통 사람을 포함하여 다양한 신분과 계층이 참가하였다. 이들 광복회 참가자들은 일제의 식민통치를 거부하고 민족의 자주성 회복하여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백산실기』 등 관련 자료와 기존의 연구성과¹⁾를 참고하여 광복회 독립운동과 영호남 광복회 투쟁을 지부조직과 중심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황해도나 기호지역 등 타 지역 광복회 세력과의 차별성도 마땅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나 과제로 남겨 다음 기획에 다루기로 한다.

II. 광복회 독립운동

광복회(光復會)는 1915년 7월 대구에서 결성된 독립운동단체이다. 대한광복회는 경술국치 후 3·1운동까지 1910년대 대표적인 국내 독립운동단체이다. 1913년 경상북도 풍기에서 채기중(蔡基中)을 중심으로 창립한 풍기광복단(豊基光復團)과 1915년 초 대구에서 박상진(朴尙鎭)을

1) 광복회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가 있다(조동걸, 「대한광복회의 결성과 그 선행조직」, 『한국학논총』 5, 1982.; 조동걸, 「대한광복회연구」, 『한국사연구』 42, 1983.; 박영석, 「대한광복회연구-박상진제문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 1986.; 박환, 「대한광복회에 관한 새로운 사료-의용실기-」, 『한국학보』 44, 1986.; 조동걸, 「대한광복회 연구」, 『한국민족주의의 성립과 독립운동사연구』, 지식산업사, 1989.; 조동걸, 「대한광복회의 결성과 조직상의 특징」, 『한국근현대사의 이해와 논리』, 지식산업사, 1998.; 이성우, 「광복회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이성우, 『대한광복회 우재룡』, 도서출판 선인, 2019.; 박환, 「대한광복회의 독립운동사적 의의」, 『독립운동의 성지 대구』,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 2020.; 『알기쉬운 대구독립운동』, 광복회 대구광역시지부, 2020.; 『광복회 독립전쟁을 이끈다』(공저), 대구경북연구원·독립운동전신계승사업회, 2021.; 이동언, 「조선국권회복단과 대한광복회의 독립운동」, 『국난극복의 대구독립운동사』(국채보상운동연구02), (사)국채보상운동기념사업회, 2021.

중심으로 창립한 조선국권회복단(朝鮮國權恢復團)의 일부 인사가 1915년 7월 15일 통합하여 결성하였다. 총사령에는 박상진, 부사령에는 이석대(李奭大, 일명 이진룡(李鎭龍))를 정하고 부사령은 만주(滿洲)에 상주하며 독립군 양성을 담당하게 하였다. 1917년 부사령 이석대가 피체되자 김좌진(金佐鎭)이 부사령이 되었다.

조선국권회복단과 풍기광복단이 합류하게 된 배경은 양 조직의 인적 교류에서 기인한다. 풍기의 채기중은 경북 안동의 이상룡(李相龍) 측근자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박상진은 구한말 의병장 허위(許蔦)의 제자로 허위의 종형 허겸(許兼)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는데, 이상룡과 허겸이 함께 서간도에서 부민단 또는 신흥학교를 설립하고 독립군 양성에 힘쓰고 있었다. 따라서 그곳 출입이 잦은 채기중과 박상진이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게 되어 조선국권회복단의 박상진 중심의 인사와 풍기광복단이 합류하게 되었다.²⁾ 그러나 풍기광복단이 의병 출신자를 중심으로 한 식민지 치하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안정성이 없는 유랑자의 모임이라면, 조선국권회복단은 안정된 중산층 이상의 모임이었다. 교육 수준에서도 후자는 신교육을 이수한 인사였다. 또한 전자가 의병적 기풍의 모임이라면 후자는 온건한 명사(名士)풍의 모임이었다.

광복회는 1916년부터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전하여 각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었다. 대구의 상덕태상회(尙德泰商會)를 본부로 하고, 영주·안동·영천·삼척·예산·연기·인천·광주·용천에

2) 박상진은 1913년 1월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던 중 양제안을 만나 채기중을 소개받았다. 풍기광복단에서 양제안은 대구·만주 등지에서 만나는 이복우·박상진 등을 연결시켰고, 나아가 산남의진에서 활동한 우재룡을 박상진에게 소개하였다(권대웅,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100쪽).

곡물상을 설치하고 연락처로 삼았으며, 서울과 황해도 해주와 만주 안동(지금의 丹東)에는 여관을, 그 밖에도 만주 창춘(長春)에 이관구(李觀求)가 설치한 삼달양행(三達洋行)과 상원양행(尙元洋行)을 연락처로 삼았다. 그리고 연해주의 니콜리스크-우수리스크(소왕령)에 연락처를 개척하고 있었다. 대한광복회의 구성 인사를 보면 조선국권회복단의 박상진과 정운일(鄭雲駟) 그리고 풍기광복단의 채기중·유창순(庾昌淳)·유장렬(柳璋烈)·한훈(韓焄)·강순필(姜順必; 姜秉洙)·김병렬(金炳烈)·정만교(鄭萬敎)·김상옥(金相玉)·정운홍(鄭雲洪)·정진화(鄭鎭華)·황상규(黃尙奎)·이각 등과, 또 이들과 관계가 없던 우재룡(禹在龍)·양제안(梁濟安)·권영만(權寧萬)·김한중(金漢鍾)·엄정섭(嚴正燮)·김경태(金敬泰) 등이다. 초기에는 유창순·한훈·권영만·우재룡 등 의병출신자나, 박상진·이관구 등 의병과 관계가 깊은 인사가 주축을 이루었다. 그러나 조직이 전국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다양한 구성을 보였다. 양반과 상민이었던 사람이 함께 어울렸고, 유학자가 있는가 하면, 유교 가정에 태어나기는 하였지만 신교육을 받아 혁신유림의 성격을 띤 인사도 있었다. 그 가운데에도 지도층 인사인 박상진·이관구 등은 유교 교육과 신교육을 모두 받고, 중국의辛亥혁명에도 참여한 혁명투사였으며, 또 단군(檀君)에 대한 관심도 강하여 대종교(大倮敎)적인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광복회 강령을 통해 조직의 목적과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호의 의연(義捐) 및 일본인이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하여 이로써 무장을 준비한다(무장준비). ② 남북 만주에 사관학교를 설치하여 독립전사를 양성한다(사관학교 설치). ③ 종래의 의병 및 해산군인과 만주 이주민을 소집하여 훈련한다(독립군 양성). ④ 중아제국(中俄諸國)에 의뢰하여 무기를 구입한다(무기구입). ⑤ 본회의

군사행동, 집회, 왕래 등 일체 연락기관의 본부를 상덕태상회(尙德泰商會)에 두고, 한만(韓滿) 요지와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 등에 지점 또는 여관·광무소(鑛務所) 등을 두어 연락기관으로 한다. ⑥ 일본인 고관 및 한인 반역자를 수시수처(隨時隨處)에서 처단하는 행형부(行刑部)를 둔다(일인과 반역자 처단). ⑦ 무력이 완비되는 대로 일본인 섬멸전을 단행하여 최후 목적의 달성을 기한다(독립전쟁). 강령을 정리하면, 첫째 군자금 수합, 둘째 독립군의 양성, 셋째 국내에 1백 개소에 각기 1만 원의 기금으로 잡화상을 설치하여 연락기관으로 운영, 넷째 무기의 비축, 다섯째 이와 같은 준비를 통해 혁명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중국에서 군관교육을 받았고 혁명대열에도 참가한 경험이 있는 이관구가 1916년에 가입함으로써 더욱 이론이 체계화되었다.

대구에서 1915년 7월 광복회가 결성된 이후, 그해 12월 만주 지린(吉林)에서도 우재룡·손일민·주진수·이홍 등에 의하여 광복회가 조직되었다. 또한 1916년 서울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때 노백린(盧伯麟)·김좌진·신현대(申鉉大)·윤홍중(尹洪重)·신현두(申鉉斗)·김정호(金鼎浩)·권태진(權泰鎭)·임병한(林炳翰)·윤형중(尹瑩重)·김홍두(金弘斗)·윤치성(尹致晟)·이현(李鉉)·박성태(朴性泰)·명기섭(明奇燮) 등이 가입하였다. 그 후 경북 칠곡(漆谷)부호 장승원(張承遠)과 대구부호 서우순(徐祐淳)에 대한 처단을 실패하고, 총사령 박상진이 그 여파로 만주에서 무기를 구입하여 돌아오는 길에 서울에서 ‘총포화약류단속령’ 위반으로 체포됨에 따라 광복회가 크게 타격을 받게 되어 노백린은 미주로, 김좌진은 만주로 망명하는 등 많은 인사가 국외로 탈출하였다.

광복회의 활동을 보면, 세 단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처음에는

상동광산(上東鑛山)과 직산광산(稷山鑛山)을 습격하여 군자금을 모은다든가, 경주에서 우편차를 습격하여 현금을 차압하여 군자금으로 충당하였다. 두 번째는 전국적으로 100개소의 연락거점을 마련하기로 하고 그것을 혁명의 거점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혁명에 필요한 무기를 확보하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 무기구입에 필요한 군자금을 거족적으로 모금하기로 결정하고 각도별로 부호명단을 확보한 후 부호들에게 현금 통문을 발송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계획대로 되지 않자 의열투쟁이라는 세 번째 방식을 택하였다. 대표적 부호를 처단하여 민족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경상도의 장승원(張承遠), 충청도의 박용하(朴容夏), 전라도의 양재학(梁在學) 일명 양재성(梁在誠)·서도현(徐道賢)을 처단하였다.

특히 광복회의 활동 중 주목되는 것은 무력준비를 목적으로 일반 부호의 의연과 군자금 모집활동을 벌였다는 점이다. 군자금 모집은 부호들을 조사해 그들에게 배당금 통고문을 보내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찾아가 의연금을 받아오는 형식으로 집행되었다. 중국에서 통고문을 발송하는 것은 대부호로 국한하고, 소자산가들에게는 국내에서 각 지부별로 고시문이나 경고문을 제작하고 발송하였다. 또한 배당금도 대부호들은 1만 원에서 1백만 원 사이의 금액을 배당하고, 소자산가들에게는 2천에서 1만 원 사이의 배당금을 지정하였다. 그러나 군자금 모집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대한광복회는 통고문의 효력을 높이고 군자금의 모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친일부호들을 처단하기로 하였다. 당시에는 고지서를 받고 모금에 호응한 사람도 있었지만, 고발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중에서 친일성이 강한 대표적 부호를 처단하기로 하고, 1917년 말과 1918년 초에 걸쳐 경상북도 칠곡군 부호 장승원, 충청남도 아산군 도고면장 박용하, 전라남도

보성군의 양재학과 낙안군의 서도현을 처단하였다. 이로 인하여 광복회의 소문이 전국에 퍼져 민족적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한 예를 보면, 광복회에서는 1916년 6월 칠곡 부호인 장승원에게 군자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장승원이 그 요구를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막을 일제 관헌에게 밀고하려 하였다. 이에 총사령 박상진은 1917년 8월 유창순·채기중·강순필 등에게 명하여 처단하게 하였다. 또한 충청도지부에서는 처단 대상을 도고면장 박용하로 정하였는데, 박용하는 대한광복회의 통고문을 헌병에게 건네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충청도지부장 김한중이 그 취지를 장두환에게 설명하자 그는 김경태에게 실행을 지시하여 김경태와 임세규가 박용하를 처단하였다. 이를 계기로 장두환이 체포되고 광복회 회원들이 체포되어 조직이 해체되기에 이르렀고, 김한중·김경태·유창순·장두환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같이 처음에 혁명단체로 출발한 광복회는 1917년 말부터는 의열투쟁 단체로 전환해 갔다. 그러다가 1918년 초에 전국 조직망이 발각되어 박상진·채기중·김한중 등은 사형선고를 받고 순국하였으며, 그밖에 수많은 인사가 옥고를 겪어야 하였다. 이때 만주에서 활약하다가 발각되지 않은 우재룡을 비롯하여 권영만·한훈 등은 그 뒤에 암살단이나 준비단(籌備團)으로 황상규·김상옥은 암살단을 거쳐 의열단으로 활동을 이어가다가 모두 장기의 옥고를 치르거나 순국하였다.³⁾

3) 이동연, 「조선국권회복단과 대한광복회의 독립운동」, 앞의 책, 136~142쪽.

Ⅲ. 광복회 지부조직과 핵심인물

광복회 조직과 주요 인물에 대해서는 『백산실기(白山實記)』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산실기』는 광복회 지휘장 우재룡이 남긴 것이다. 광복회 조직은 경상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도 및 서간도와 북간도까지 확대되었다. 그 조직망과 핵심 인물은 다음과 같다.⁵⁾

사령관	박상진
지휘장	우재룡 · 권영만
지부장	채기중(경상도) · 김한중(충청도) · 이병찬(전라도) · 김선호(경기도) · 최봉주(함경도) · 조현균(평안도) · 김동호(강원도)
본부회장	박상진 · 최준 · 이복우 등
만주사령관	이석대
국외 만주	손희당(안동여관) · 정순영(삼달양행 정미소) 등

1915년 7월 15일 채기중의 풍기광복단과 조선국권회복단 박상진이 통합하여 광복회 결성 초기에는 약 80여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었다. 그해 12월 만주 지린(吉林)에서도 우재룡 · 손일민 · 주진수 · 이홍 등에 의하여 길림광복회가 조직되었다. 또한 1916년 서울을 중심으로 크게

4) 『백산실기』는 『백산여화(白山旅話)』를 국한문으로 보완한 것이다. 『백산여화』는 1955년 2월(음) 산남의병장 정용기의 손자 정노용이 우재룡의 생애를 정리한 것이다. 우재룡은 사망하기 직전인 1955년 2월 중순(음력) 정노용을 찾아가 9일 동안 자신의 생애를 구술했고 정노용은 이를 『백산여화』로 정리하였다. 정노용은 1971년 한문체였던 『백산여화』를 국한문체인 『백산실기』로 다시 보완 정리하였다. 『백산실기』는 400자 원고지 58매로 되어 있다. 또한 『백산실기』는 이성우, 『대한광복회 우재룡』에 부록으로 실려있다. 도서출판 선인, 2019, 220~272쪽.

5) 『백산실기』, 26~27쪽

확대되었는데, 이때 노백린(盧伯麟)·김좌진·신현대(申鉉大)·윤홍중(尹洪重)·신현두(申鉉斗)·김정호(金鼎浩)·권태진(權泰鎭)·임병한(林炳翰)·윤형중(尹瑩重)·김홍두(金弘斗)·윤치성(尹致晟)·이현(李鉉)·박성태(朴性泰)·명기섭(明奇燮) 등이 가입하였다. 1916년 황해도 이관구도 가입하였다.

광복회는 1917년 음력 6월경 각도에 지부 결성을 추진하였는데, ‘대구권총사건’으로 복역하고 출옥한 김한중이 경주의 박상진 집에서 회합한 후 본격화되었다. 조직의 규모는 발상지인 경상도, 김한중을 중심으로 한 충청도, 이관구를 중심으로 한 황해도의 조직이 컸고 활동도 가장 활발하였다. 먼저 충청도지부를 설치하고, 이어서 강원도와 전라도로 조직을 확대해 나갔다.⁶⁾ 특히 충청도 인사들이 많이 참여하였는데, 충청도지부장 김한중의 소개로 장두환(張斗煥)을 가입시키고 회원모집 및 자산가를 조사하게 하였다. 대구에는 상덕태상회를 설립하여 본부로 하고 경상북도 영주의 대동상점 외에 강원도 삼척, 전라남도 광주, 충청남도 예산·연기, 경기도 인천, 평안북도 용천에 곡물상을 경영하며 연락처로 하였고, 서울과 황해도 해주에는 여관, 만주에는 안동의 양제안(梁濟安)이 경영한 여관과 이관구의 삼달양행, 창춘에 상원양행 등의 잡화상을 설립하여 연락 거점으로 하였다. 이러한 상점을 거점으로 하였던 것은 일본관헌의 눈을 피하여 군자금의 거래 등 연락이 편리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영업을 통하여 군자금을 모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⁷⁾

6) 충청도지부 김한중과 전라도지부 이병찬은 채기중의 소개로 강원도지부 김동호는 대구형무소에서 박상진과의 만남이 인연이 되어 광복회에 가입하여 지부장으로 활동하였다.

7) 권대웅, 앞의 책, 100~135쪽 ; 이성우, 「광복회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광복회 구성원의 학맥과 인맥을 살펴보면⁸⁾ 영남지방의 경우 사령관 박상진은 성재 계열의 허위에게서 수학하였다. 김재열과 유충하는 한주학파의 이두훈과 곽종석의 문하였다. 호서지방의 김재풍·김한중·이재덕·김상준 등은 한학자요 의병장 민중식의 소모관으로 활약한 김재정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특히, 김한중은 김재정의 맏아들이다. 해서와 관서지방의 이관구·조선환·양택선·이근영·이문성·박원동·이진룡·윤현·변동환·고준주 등은 초기 의병항쟁을 이끌었던 유인석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오찬근은 을사늑약 무효를 주장한 최익현, 박동흠은 박문일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이들은 모두 이항로 계열이다. 이들과 달리 신학문을 한 인사들도 많았다.

양정의숙 박상진, 보성·경신의 김재열, 대구 광명의 이정희, 송실·중국군관학교 출신 이관구, 일본유학생 출신 홍주일, 밀양 동화학원의 황상규와 김대지, 교사 출신 김노경과 박제준, 변호사 출신 이근석과 최응선 등이 있다.

광복회는 인척을 동지로 규합하였다. 비밀결사였기 때문이다. 먼저 광복회 사령관 박상진은 생부와 동생 박호진과 박한진 등을 동지로 하였다. 양제안과 양한휘는 부자 사이이다. 채기중은 처 6촌 간인 정진화를 영입하였다. 유명수와 박제선, 우재룡과 정재목, 장두환과 박장희는 처남매부 사이였다. 이동흠과 이종흠, 성달영과 성문영, 김진우와 김진만은 형제이다.

이와 같이 광복회 구성원들은 학문적으로 전통 유학의 맥락을 이은 혁신 유림들과 신학문을 한 사람들까지도 아우르고 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광복회

8) 박중훈, 「고현 박상진의 생애와 항일투쟁활동」, 『국학연구』6, 국학연구소, 2001, 115~119쪽.

활동이 전국을 대상으로 펼쳐질 것을 전망하고 있다.⁹⁾

광복회 8도 지부장 중 경상도지부장 채기중과 전라도지부장 이병찬을 소개하기로 한다.

1. 경상도 지부장 채기중[1873 ~1921, 독립장 (1963)]

채기중(蔡基中, 1873.7.7(음) ~ 1921.7.9)은 1873년 7월 7일(음) 경상북도 함창(咸昌)에서 채헌락(蔡獻洛)과 곡부공씨(曲阜孔氏) 사이의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은 인천이며, 자는 극오(極五), 호는 소몽(素夢)이다. 선생은 5척 4촌 정도의 키에 얼굴이 둥글고 검은 편이었으며, 눈이 컸다고 한다. 성품은 순박하고 민첩하며 구김살 없는 기질의 소유자였다. 선생이 태어난 함창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일본군이 주둔하였고, 이후 의병전쟁 때까지 전란이 거듭되던 곳이었다. 또한 일제의 침략이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던 고장이었다. 채기중은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병참부대에 잡혀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그가 34세 되던 해인 1906년에 풍기로 이주하였다.

채기중은 어려서부터 의협심이 강한 소년이었다고 한다. 남의 부당한 처사나 억울한 일을 보고는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던 것이다. 근대식 교육을 받지는 못했으나, 어려서부터 서당에서 한학(漢學)을 배워 상당한 수준의 한문실력을 갖고 있었다. 또한 18세 때부터 한시에 심취하기도 했다. [소몽유고 素夢遺稿]에는 선생이 지은 한시가 76수나 전해질 정도로 한시에도 조예가 깊었다.

채기중이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된 것은 풍기로 이주한

9) 김일수, 「제6장 광복회를 이끈 사람들」, 『광복회 독립전쟁을 이끈다』(공저), 대구경북연구원·독립운동전신계승사업회, 2021, 76~77쪽.

이후부터이다. 풍기는 [정감록 鄭鑑錄]에 십승지지(十勝之地)로 알려진 곳으로 전국에서 많은 이주민이 모여들었던 곳이다. 이주민의 출입이 많아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지사들에게는 정체를 숨기고 활동하기에 좋은 장소였던 것이다. 채기중은 1913년 풍기광복단을 조직하면서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되었다. 풍기광복단에는 채기중을 비롯해 유창순(庾昌淳), 유장렬(柳璋烈), 한훈(韓焄), 강순필(姜順必), 김병열(金炳烈), 김상옥(金相玉), 정운홍(鄭雲洪), 정진화(鄭鎭華) 등 우국지사들이 가입하여 활동했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경제적으로 생활 근거를 잃고 모여든 이주민 출신들이었으며, 의병적 기질의 인사들이었다. 채기중은 풍기광복단을 조직하고 활동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조직 과정은 양제안의 아들이 작성한 자료인 [양벽도 공제안실기 梁碧濤公濟安實記]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한 달쯤 후 김봉초(金鳳樵), 정성산(鄭星山) 두 사람이 찾아와 손을 잡으며 “시국이 날로 어려워지는 이 때에 풍기에 하늘을 찌를 만한 의기(義氣)를 지닌 지사(志士) 소몽(素夢) 채기중(蔡基中)이 생산작업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세 가구의 재산을 모아 비밀히 풍기에 혁명기관을 설치하고, 전국에 흩어진 의병무리의 장교와 모험적인 용사들을 은밀히 불러 모아 바야흐로 대사(大事)를 도모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공이 마땅히 가서 논의하고 지휘함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채기중은 의병에 참여한 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인물들과 모험용사들을 모집해 광복단을 조직했다. 양제안은 풍기로 선생을 방문해 생사를 같이 하기로 결의하였다. 풍기광복단의 최대 문제는 군자금의 확보였으며, 이를 위해 일본인 광산이나 부호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채기중은 일본인이 경영하는 영월의 중석광에 잠입하여 활동하기도 했으며 부호들을 대상으로 군자금 모집활동을 전개했다.

채기중은 1915년에 광복회 조직에 참여하였다. 광복회는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던 조선국권회복단의 일부 인사들과 풍기광복단이 연합해 조직한 비밀단체였다. 채기중이 풍기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같은 뜻을 품고 활동하던 지사들이 있었는데 박상진(朴尙鎭), 우재룡(禹在龍), 이관구(李觀求), 양제안(梁濟安) 같은 이들이다. 이들은 광복회를 조직하기 이전부터 만주를 오가며 독립운동을 추진했던 지사(志士)들이었다.

한일합방을 전후한 시기에 서간도를 중심으로 해외 독립운동기지가 건설되었다. 해외 기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국내에서 찾아오는 인재들을 바탕으로 독립군을 양성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국내에서 많은 이주민들이 건너갔다. 그러나 흉년과 풍토병으로 생계마저 위협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때문에 서간도 독립운동기지 건설에는 국내의 지원이 필수적이었다. 당시 만주를 오가던 이들은 이곳의 절박한 실정을 목격하고 지원할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군자금을 모집하고 군대를 양성해 독립을 달성한다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단체가 바로 광복회였다.

한말 국권회복운동의 큰 흐름은 의병전쟁과 계몽운동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대일항쟁기에 접어들면서 ‘조국독립’이라는 역사적 과제 앞에서 이념과 투쟁방략이 따로 있을 수 없었다. 때문에 공화주의 이념과 의병전쟁의 투쟁방략을 서로 수용해 통일된 형태의 운동노선이 추구되었다. 대한광복회는 이러한 성격의 대표적인 국내 독립운동단체였다. 풍기광복단이 의병적 기질을 가진 인사들이 중심이 된 단체라면, 대구를 중심으로 활동한 조선국권회복단은 계몽운동 계열의 인사들이 중심이 된 단체였다. 박상진을 비롯해 혁명적 기질을 가진 조선국권회복단의 인사들과 풍기광복단이 연합해 조직한 것이 광복회였다.

채기중과 박상진과의 만남은 양제안의 소개에 의해 이루어졌다. 양제안은 만주와 국내를 오가며 풍기광복단의 지도부와 박상진과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양제안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던 요인은 그의 의병 경력 때문이었다. 양제안은 허위와 함께 김산의진에서 활동했고 허위의 제자인 박상진을 만주에서 만났던 것이다. 박상진은 양제안의 소개로 선생을 방문해 동지적 결합을 했다.

광복회는 군자금 모집 · 혁명기지 건설 · 친일부호 처단 · 무기구입 · 독립군 양성 등을 목적으로 한 국내 혁명단체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혁명기지를 건설하고 적당한 시기에 독립전쟁을 벌여 독립을 달성한다는 투쟁방략을 가졌다. 광복회는 비밀 · 폭동 · 암살 · 명령 등 4대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활동을 전개했다. 광복회의 투쟁강령에는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 ① 부호의 의연금 및 일인(日人)이 불법 징수하는 세금을 압수하여 무장을 준비한다.
- ② 남북만주에 군관학교를 설치하여 독립전사를 양성한다.
- ③ 종래의 의병 및 해산군인과 만주 이주민을 소집하여 훈련한다.
- ④ 중국 등 여러 나라에 의뢰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 ⑤ 본회의 군사행동, 집회, 왕래 등 모든 연락기관의 본부를 상덕태상회(대구)에 두고, 한만(韓滿) 요지와 북경 · 상해 등에 지점 또는 여관 · 광무소(鑛務所) 등을 두어 연락기관으로 한다.
- ⑥ 일인(日人) 고관 및 한인 반역자를 수시(隨時) · 수처(隨處)에서 처단하는 행형부(行刑部)를 둔다.
- ⑦ 무력이 완비되는 대로 일인(日人) 섬멸전을 단행하여 최후 목적을 달성한다.

광복회는 이와 같은 투쟁강령들을 실천하며, 국내에서 조직을 갖추는 동시에 만주에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만주 길림에 우재룡을 파견했고, 주진수(朱鎭洙), 손일민(孫一民) 등과 길림광복회를 조직해 만주거점의 본부로 삼았다. 또한 이진룡을 부사령으로 임명하여 만주에 상주시켰다. 이진룡이 순국한 후에는 김좌진을 부사령으로 임명하였다. 또한 전국 각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군자금 모집과 의협 투쟁을 전개했다. 이를 위해 상업조직으로 위장한 거점들을 설치했다. 대한광복회는 한만요지(韓滿要地)와 북경·상해 등에 지점 또는 여관·광무소 등을 두어 연락기관으로 한다는 강령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거점들은 곡물상이나 잡화점으로 위장한 상업조직이었는데 국내에서는 상덕태상회(尙德泰商會)와 영주의 대동상점(大同商店)을 비롯해 대구, 영주, 삼척, 광주, 예산, 연기, 인천 등에 설치되었다. 이 밖에도 만주에는 안동여관(安東旅館), 삼달양행(三達洋行), 상원양행(尙元洋行) 등이 설치되고 운영되었다. 특히 영주의 대동상점과 대구의 상덕태상회는 대한광복회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만주의 안동여관 역시 대한광복회원들이 만주에서 활동할 당시 크게 활용되었다.

광복회는 전국에 지부를 설치하면서 전국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지부는 경상도, 충청도, 황해도, 전라도 등을 중심으로 조직되고 활동하였다. 채기중은 당시 경상도지부의 책임을 맡고 경상도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광복회의 회원모집과 군자금 수집 활동에 전념했다. 또한 끊임없이 회원을 모집해 광복회가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풍기광복단원으로서 광복회에 가입해 활동한 인물들은 채기중과의 인연 때문에 참여한 것이다. 또한 광복회는 각도 지부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 발전했는데, 그 중 충청도지부와 전라도지부에서의 군자금 모집과 의협투쟁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충청도지부장인 김한중(金漢鍾)과 전라도지부장인 이병호(李秉昊)를 만나 광복회에 가입시켰던 것 또한 채기중이었다.

광복회의 활동은 크게 군자금 모집과 의협투쟁에 있었다. 광복회는 무력 준비를 목적으로 일반 부호의 의연금을 바탕으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부호들을 조사해 그들에게 배당금 통고문을 보내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광복회원이 찾아가 받아오는 형식이었다. 군자금 모집은 선생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선생은 경상도 일대 자산가들의 주소, 성명, 재산 등을 조사했고 조사한 자산가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통고문이 광복회 명의로 발송되었다.

우리나라 천년의 종사(宗社)는 회진(灰塵)되고 우리 2천년의 민족은 노예가 되어 섬 오랑캐의 악정폭행은 날로 증가하니 이를 생각하노라면 피눈물이 솟고 조국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이 본회가 성립된 이유이니, 각 동포는 그 지닌 바 능력을 다해 이것을 돕고 앞날 본회의 의기(義旗)가 동쪽에 오를 것을 기대하라. 그리고 각 자산가는 자금을 미리 준비하여 본회의 요구에 응하여 출금(出金)하기 바란다. 만일 우리 회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본회에는 자체 정규(定規)가 있어 이에 따라 조처하리라.

통고문은 우재룡에 의해 중국 안동에서 발송되었다. 통고문의 발송은 대부호로 국한하였고, 소자산가들에게는 국내에서 각 지부별로 고시문이나 경고문을 제작하고 발송하였다. 채기중은 경상도의 소자산가들에게 “국권회복의 사유를 설파하고 의연금을 출연하여 광복회를 원조하되 만일 응하지 않을 때는 후일 후회할 것이다. 그리고 출금기일을 경과할 때는 군율(軍律)에 의해 처단할 것이다”라는 경고문을 직접 작성해 발송하였다. 경고문에는 광복회지령원감독장(光復會指令員

監督章)이라는 도장을 새겨 날인하고 발송하였다. 그리고 당시 경상도에서 활동하고 있던 김한중·임세규 등에게 경고문을 수령한 자산가를 방문하여 자금을 모집해 오도록 하였다.

채기중은 비록 경상도지부의 책임을 맡고 있었지만 활동 범위는 경상도에 국한되지 않았다. 전라도지부에서의 군자금 모집도 선생이 담당하였다. 선생은 이병호가 조사한 전라도의 자산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발송하였다.

모사(謀事)는 사람에 달려있고 성사(成事)는 하늘에 있으므로 충의의 선비를 모아 민국(民國)을 조직하고 병사를 기르고 농회(農會)를 개창(開辦)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움은 역시 금전이다. 여기에서 생각 끝에 유지(有志) 자산가들에게 간청하여 원조를 구하게 되었다. 이 경고에 위배하거나 불응하지 않으면 첫째는 국가의 행복이요, 둘째는 귀하의 생색(生色)될 것이니, 보통 세상의 예사로운 자들과 동일시 말고, 얼마간의 금액을 며칠까지 준비하여 본회 간사인(幹事人)의 지시를 기다려 서둘러 올령시행(律令施行)과 같이 이행해 주기 바란다. 만일 반동(反動)으로 놀거나 또는 본회원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는 자 있으면 즉시 본회로부터 결사단을 파견하여 보복할 능력이 완전하므로 십분 유의하기 바란다.

그러나 광복회의 군자금 모집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식민지 권력에 안주하려는 부호들이 군자금 모집을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광복회는 통고문의 효력을 높이고 군자금 모집을 원활히 하기 위해 친일부호의 처단 등 의협투쟁을 전개하였다. 나아가 의협투쟁은 식민지 권력에 안주하려는 친일세력들에게 민족적 응징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북 칠곡의 장승원(張承遠)을 처단하였으며, 충청도지부에서 도고면장 박용하(朴容夏)를 처단하여 친일부호와 친일관리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켰다.

채기중은 장승원 처단에 직접 가담하였다. 장승원은 한말에 허위(許蕙)의 도움으로 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한 인물이었다. 그는 허위에게 의병자금으로 20만 원의 현금을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박상진은 그의 처단 이유를 '광복회를 원조할 것을 청탁했다가 거절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막을 관현에게 밀고하려는 동태가 보인 장승원을 살해하여 그 원한을 푸는 한편, 남들을 위협하여 그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장승원은 영남의 부호이면서 친일행각을 하고 있었고, 소작인들에 대한 착취가 일본인 지주들보다 심한 친일부호였다. 이런 이유로 대한광복회에서는 이미 권성욱(權成旭)을 통해 2차례에 걸쳐 그를 처단하려 했으나 실패한 상태였다.

장승원 처단은 채기중이 주도했으며 강순필(姜順必), 유창순(庾昌淳)이 함께 가담했다. 그는 1917년 음력 9월 25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총과 박상진으로부터 받은 권총 1정을 가지고 장승원의 집에서 10리쯤 떨어진 주막에 숙소를 정했다. 채기중은 먼저 장승원 집에서 여행객을 가장하고 하루 숙박을 하면서 정황을 파악한 뒤, 선생은 다음날 석유병을 준비했다. 거사를 치른 후에 그의 집을 소각시키기 위함이었다. 또한 임무를 분담하여 선생과 강순필이 권총으로 장승원을 처단하고 유창순이 그의 집을 소각하는 임무를 맡기로 하였다. 다음날 장승원을 방문해 선생과 강순필이 장승원의 머리와 목, 왼쪽 무릎을 명중시키며 장승원을 처단했다. 그러나 장승원의 집을 소각시키는 일은 성공시키지 못했다. 선생은 이 거사가 광복회에서 실행한 것임을 알리기 위해 그의 집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고 탈출하였다.

조국광복을 하자는 것은 하늘과 사람의 같은 뜻이니, 이 큰 죄를 성토하여

우리 동포를 경계하노라.

경계하는 사람 광복회원

채기중을 비롯해 장승원 처단에 가담했던 이들은 모두 풍기광복단 출신들이었다. 이는 풍기광복단 출신 인사들의 무장투쟁적 성격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장승원 처단사건은 광복회의 의협투쟁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었다. 또한 친일세력들에게 큰 경각심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광복회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장승원 처단사건 후 충청도지부에서 박용하의 처단이 이루어졌고, 이때부터 광복회는 일경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마침내 채기중을 비롯해 박상진, 김한중, 김정태, 장두환 등 광복회의 주요 인물들이 피체되어 사형 순국하는 등 광복회 조직이 크게 와해되었다. 채기중도 사형을 선고 받았고, 1921년 8월 12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 순국하였다.

채기중이 독립운동에 투신한 기간은 10여 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조직하고 활동한 풍기광복단과 광복회는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독립운동단체였다. 1910년대는 일제의 무단성과 폭력성이 극에 달했던 무단통치기였으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핵심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풍기광복단과 광복회 활동에서 채기중은 끊임없이 단원을 확보하고 자금모집과 의협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많은 회원들이 그를 통해 광복회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군자금 모집에 있어서도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광복회의 대표적인 의열투쟁인 친일부호 처단도 그의 치밀한 준비와 지휘 아래 성공할 수 있었다. 채기중은 독립운동에 투신한 이래 일관되게 무장투쟁을 실천해 옹기 분이었다.

광복회는 그 명맥이 3·1운동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광복단결사대와 주비단으로 계승되면서 1920년대에도 활동이 계속되었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¹⁰⁾

2. 전라도 지부장 이병찬[1886~1955, 애족장(1990)]

이병찬(李秉燦, 1886.11.18.~1955.4.22.)은 전라남도 보성군 복내면 시천리(詩川里) 출신이다. 그의 본명은 이병호(李秉昊)로 알려졌다.¹¹⁾ 이병찬은 1915년 7월 15일(음) 대구 달성공원에서 비밀리에 결성된 광복회에 1917년 채기중을 통해 가입하였다. 두 사람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교유하는 관계였다. 광복회 재판 기록에 따르면 이병찬은 채기중을 만나 광복회가 전망하는 활동 취지에 공감하여 광복회에 가입하고, 광복회 전라도지부를 결성하였다. 그는 1918년 1월 광복회의 독립운동 자금 모금에 적합한 인물 명단을 채기중에게 전달하였다. 이병찬은 그는 최면식(崔勉植)을 전남지부에 가입시켜, 최면식 소유의 권총을 독립운동 자금 모금에 활용하였다.

광복회 전라지부는 광주·목포·보성·담양 등 보성을 기반으로 전남지역 부호에게 「고시문」을 발송해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는 활동을 벌였다. 특히, 이병찬은 1918년 1월 경상도 지부장 채기중에게 전남지역 부호 명단을 넘겨주었고, 이를 넘겨받은 채기중은 포고문을 작성하여 김한중(金漢鍾)과 함께 대전, 정읍, 이리 등의 역사(驛舍) 우편함에 넣어 보냈다.

10) 국가보훈처, 「이달의 독립운동가 채기중」(2003년 7월); 김일수, 「제6장 광복회를 이끈 사람들」, 『광복회 독립전쟁을 이끌다』(공저), 대구경북연구원·독립운동진전계승사업회, 2021, 92~101쪽.

11)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명단에는 후손이 본명인 이병호로 신청하여 병호로 되어 있다. 정부에서 1990년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이병찬은 광복회의 독립운동자금 모금 활동을 벌이다 일제 관헌에 체포되어 1919년 2월 28일 공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 및 공갈·총포류 단속 취체령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다. 그는 1990년 대한민국 정부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¹²⁾

이병찬 관련 자료로는 「우재이공전」(愚齋李公傳 ; 1960년 4월)이 있다. 이 자료는 광복회 전라도지부장 이병찬의 사위 양회갑(梁會甲)이 1960년 4월에 작성한 이병찬 약전이다. 이병찬의 학문과 성품을 소개하고, 1915년 광복회에 참여하여 전라도지부장으로 활동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¹³⁾

IV. 광복회를 계승하다

광복회는 1917년 말부터는 의열투쟁 단체로 전환해 갔다. 그러다가 1918년 초에 전국의 조직망이 발각되어 박상진·채기중·김한중(金漢鍾) 등은 사형선고를 받고 순국하였으며, 그밖에 수많은 인사가 옥고를 겪어야 하였다. 이때 만주에서 활약하다가 발각되지 않은 우재룡(禹在龍)을 비롯하여 권영만(權寧萬)·한훈(韓焄) 등은 그 뒤에 암살단이나 준비단(籌備團)을 결성하여 활약하였고, 황상규(黃尙奎)·김상옥(金相玉)은 암살단을 거쳐 의열단에서 활약하다가 모두 장기의 옥고를 치르거나 순국하였다. 광복회는 그 뒤 암살단·광복단결사대(光復團決死隊)·준비단(籌備團) 활동으로 계승되었다.

광복회는 1918년 1월부터 회원들이 일제에 체포되면서 와해되기

12) 김일수, 앞의 책, 105쪽.

13) 이동언, 「제8장 광복회 사람들, 혼을 남기다」, 『광복회 독립전쟁을 이끌다』(공저), 대구경북연구원·독립운동전신계승사업회, 2021, 138쪽.

시작하였다. 군자금 모금을 위해 발송한 통고문과 부일협력자를 차단한 의열투쟁은 광복회가 일제에 노출되는 계기가 되었다. 일제는 1917년 10월경부터 광복회의 존재를 파악하였다. 군자금 모금을 위해 광복회에서 발송한 통고문이 발견되었고, 광복회의 의열투쟁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는 광복회 회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였다. 일제의 식민지 무단통치하에 국내에서 ‘광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가 조직되어 군자금을 모금하고 의열투쟁을 전개하며 광복회 회원들의 정체를 밝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는 통고문 수령자의 주소와 군자금 요구액이 자산 정도에 비례한다는 점에 주목해 통고문이 가장 많이 발견된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집중했고, 1918년 1월 천안에서 충청도지부원들이 체포되었으며, 박상진·채기중·임세규·이관구·김한중 등 주요 인물들이 체포되었다.

1918년 2월 박상진을 비롯하여 주요 인물들이 체포된 후 광복회 활동은 전라도 지부가 중심이 되었다. 광복회 전라도 지부장 이병찬은 전라도 지역의 자산가 명단을 작성하였고, 같은 해 5월 목포의 현기남, 광주의 임병용, 보성군의 양신묵·박남현 등 전라도 지역 자산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발송하였다.

경고문은 경상도 지부에서 사용했던 통고문이었다. 그런데 전라도 지부에서도 경고문을 통고문으로 사용하였다. 경상도 지부장이었던 채기중이 전라도 지부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이었다. 채기중은 일제가 수사망을 좁혀오자 활동지역을 전라도로 옮겼다. 일제의 광복회 회원 검거 열풍은 충청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경상도 지부장 채기중은 경상도 지역에서의 활동을 중단하고 전라도 지역으로 피신하여 활동하였다.

채기중과 이병호는 1918년 6월 전라남도 보성군 통고문 수령인들로부터 군자금 모금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감시가 엄중하여 실행하지 못하였다. 광복회 조직이 일제에 노출된 상황에서 군자금 모금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채기중과 이병호는 보성에서 군자금 모금을 포기하고 광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들도 같은 해 7월 14일 목포에서 일경에 체포되고 말았다.

일제 감시망을 피해 체포를 면한 광복회 회원들은 해외로 망명하거나 국내에서 은신하면서 잠시 활동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3·1운동 후 국내에서 비밀결사단체가 조직되면서 활동을 재개하였다, 광복회 회원들은 활동을 재개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광복회가 설치했던 기관뿐만 아니라 국내지부도 모두 와해되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총사령 박상진을 비롯하여 지도부 구성원들이 체포되었다. 따라서 광복회를 다시 이끌어갈 지부도 구성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 다행히 우재룡·권영만·한훈은 체포를 면할 수 있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광복회는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다. 우재룡은 1919년 권영만·안중운·소진형·이재환 등과 충청도 일원에서 활동을 재개하며, 1920년 6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계하여 활동을 하고자 주비단을 조직하였다. 한훈은 1920년 6월 광복단결사대(조선독립군사령부)를 조직하였다. 우재룡과 권영만은 1920년 주비단 활동 중 체포되었으며, 한훈은 의열단 김상옥 의사와 연합해 1920년 8월 미의원단 방문을 계기로 조선총독 및 일제고관 암살을 준비하던 중 체포되었다.

이처럼 광복회는 1910년대 일제 무단통치하에서 민족운동 세력을 규합하여 독립을 목적으로 무장투쟁을 준비했던 대표적인 비밀결사 단체였다.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단체로는 유일하게 전국적 조직을 갖추고 의열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의열투쟁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으며,

1910년대 국내 독립운동의 공백을 메우고 민족역량이 3·1운동으로 계승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또한 1920년대 광복단결사대와 주비단을 조직하여 광복회 활동을 계승하였으며, 광복 후 생존지사들은 재건광복회와 재건광복단을 조직해 신국가건설에 참여하기도 하였다.¹⁴⁾

1. 광복단결사대의 조직과 활동

광복단결사대는 1920년 3월 서울에서 조직되어, 상하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 및 만주의 북로군정서 등과 연결되어 국내에서 군자금모집 및 의열투쟁을 전개한 독립운동단체이다. 암살단(暗殺團)과 힘을 합쳐 1920년 미국 의원단의 방한 시 조선총독 이하 일본 관리 및 친일파 처단 계획을 세웠다가 거사 직전 발각되었다.

광복단결사대는 광복회 출신 한훈·우재룡과 불변단(不變團) 출신 박문용(朴文鎔) 등이 주축이 되어 결성하였다. 1920년 2월 15일 한훈·박문용·우재룡·홍모 등은 한훈의 숙소에서 조선독립군사령부를 조직하고, 투쟁방략을 독립군 모병과 결사암살단 조직으로 결정하였다. 국내에서 인재를 선발하여 국외 독립군으로 양성하고, 국내에서는 결사암살단을 통하여 일본 관리 및 친일파를 처단하고 군자금을 모집한다는 방안이었다. 조선독립군사령부의 결성 사실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알리기 위해, 한훈과 박문용이 상하이로 파견되었다. 이들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총리 이동휘 이하 각 총장 및 차장 등을 만나 조선독립군사령부 결성과 향후 독립운동 전략을 밝히고, 지원을 요청하였다. 1920년 3월 8일 이들이 국내로 귀국하자 한훈은 우재룡·

14) 이동언, 「제7장 광복회를 계승하다」, 『광복회 독립전쟁을 이끈다』(공저), 대구경북 연구원·독립운동전신계승사업회, 2021, 115~117쪽.

임기현(任箕鉉) 등에게 임시정부 인사들의 접촉 결과를 전하며, ‘조선 독립군사령부’ 조직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 이들은 군사령부의 장교는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로, 병졸은 간도로 보내 양성키로 하였으며, 또 결사대를 조직하여 조선총독·정무총감·이완용·송병준 등과 형사를 처단키로 결의하였다. 이것이 광복단결사대인 셈이었다. 이들이 구상한 투쟁방략은 광복회가 독립전쟁적 혁명전략을 수립하고, 의협투쟁 방략을 채택하였던 사실과 흡사하였다.

참여 인물로는 한훈·우재룡·박문용을 비롯하여, 김병순(金炳淳)·윤기중(尹奇重)·윤상보(尹祥普)·김형규(金衡圭)·이근영(李根榮)·유학주(柳鶴柱)·기명섭(奇明燮)·고제신(高濟臣)·임성태(林聲泰) 등이 확인된다. 구성원이 소수였던 것은 존립기간이 짧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수 정예 운영이 효과적인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이들의 결합은 주로 한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홍주의진과 대한독립의군부 그리고 광복회 시절의 동지들로 구성되었고 여기에 박문용 등의 불변단 출신이 합류한 양상을 띠었다.

광복단결사대는 친일파 처단 등의 의열투쟁을 통한 군자금 모금을 행동지침으로 삼았다. 군자금 모금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투쟁대오를 갖춘 1920년 4월 경부터였다. 결성 직후인 1920년 4월경 한훈은 고제신·임성태 등과 전북 군산·김제 일대에서 군자금을 모았다. 고제신은 1916년부터 한훈과 함께 전남 일대에서 군자금 모금에 참가할 경험이 있었다. 한훈이 미국의원단 방한 때 의거에 참가하자, 고제신·임성태 등은 독자적으로 군자금을 모금하다가 1922년 체포되었다. 이들의 체포로 1916~1917년간의 광복단결사대의 군자금 모금사건이 발각되었다. 1920년 5·6월경에는 한훈과 박문용이 전남 광주 본촌면의 노진영(盧軫永)에게 군자금 1천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1920년 7월경 한훈이 미국의원단 방한을 이용한 의거를 위해 만주를 왕래하고, 또 암살단과 합류함에 따라 활발히 전개되지 못하였다. 1920년 8월 미국의원단의 방한에 맞추어 의거를 일으키려는 계획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만주의 독립군, 국내 독립운동세력들이 긴밀히 연대하여 다단계 전략으로 추진되었다. 상하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외교적 노력을 벌이고, 만주의 광복군총영과 국내의 광복단결사대·암살단·불변단 등은 미국의원단이 국내를 통과하는 요로에서 과감한 투쟁을 벌이는 한편, 대대적인 만세시위를 전개함으로써,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린다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임시 정부는 미의원단을 환영하기 위해 홍콩까지 대표를 파견하는 한편 상하이에서 미의원단과 교섭을 벌이며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환영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하게 미의원단과 접촉하여 한국민의 독립의지를 천명하였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는 보다 강력한 방법으로 추진해 갔다. 하나는 광복군총영에서 결사대를 국내로 파견하여 선천·평양·서울에서 각기 거사를 거행하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훈의 광복군 결사대와 김상옥의 암살단이 연합하여 서울에서 대대적인 거사를 거행기로 하였다.

이들의 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미국의원단이 남대문역 광장에서 기념 촬영을 할 때 미리 준비한 암살단 취의서 및 통고문, 경고문 등을 환영군중들에게 살포하는 한편,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한다. 둘째, 자동차 2대에는 사격 설비를 장치하여 총격전에 대비하고, 자동차 1대에는 폭탄을 싣고 총독 이하 일본 관리들을 처단한다. 셋째, 총격전이 벌어지는 동안 폭탄을 실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관공서 및 경찰서 등을 폭파한다는 것이었다. 폭탄은 북로군정서의 최우송(崔友松)이 김동순에게 보내기로 하였으며,

한훈은 7월 7일 만주로 가서 최우송으로부터 권총 3정과 탄환 3백발을 받아 돌아왔다. 김상옥은 암살단 경고문과 취의서 등의 인쇄를 맡았으며, 인쇄 과정에서 불변단의 조만식과 독립군환영단의 김교상·김교선 형제가 동참하였다. 또 한훈은 최민석과 함께 태극기와 성조기 10여 매를 만들었다. 그러나 미국의원단이 도착하기 하루 전인 8월 23일 대대적인 예비검속이 실시되어 김상옥의 집이 수색을 당하였다. 그 결과 한훈을 비롯하여 김동순·서대순·이운기·신화수·김화룡·최석기·이돈구·조만식·명제세·최영만·유연원·윤익중·서병철·김태원·박문용 등 16명이 체포되었다. 이로서 광복단결사대와 암살단의 조직도 파괴되었다. 이후 한우석 징역 8년, 김동순 10년, 박문용 7년, 이돈구 6년, 조만식·김태원·명제세 3년, 서병철·신화수·윤익중 2년, 김화룡·서대순·최영만 1년, 이운기 10월, 최석기 6월형을 언도받았다.

광복단결사대와 암살단, 그리고 국내외 독립운동세력이 힘을 모아 추진하려던 의거는 무산되었지만, 서울 한복판에서 대담무쌍한 방법으로 계획·추진되었던 투쟁방략은 의열투쟁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이들의 투쟁은 의병투쟁에서 비롯되어 풍기광복단·광복회로 이어지는 투쟁역량의 축적에 의해 가능한 것이었다. 독립전쟁의 최전방인 국내에 거점을 두고 강력한 의열투쟁의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한 광복군결사대의 활동은 1910년대 풍기광복단과 광복회의 투쟁방략을 계승·발전시켰고, 1920년대 의열투쟁의 지평을 열었다.¹⁵⁾

15) 장석홍, 「광복단결사대와 투쟁노선과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17, 2001; 이동언, 「광복단결사대의 조직과 활동」, 『광복회 독립전쟁을 이끈다』(공저, 대구경북연구원·독립운동전신계승사업회, 2021, 117~120쪽.

2. 준비단의 결성과 활동

주비단(籌備團)은 서울에서 조직된 대한민국임시정부 후원단체이다. 1920년 6월 서울에서 심영택(沈永澤)·이민식(李敏軾)·안중운(安鍾雲) 등 80여 명이 상하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후원하기 위해 무장에 의한 군자금 모집을 목적으로 주비단을 결성하였다. 이민식은 1910년 국권상실 이후 뜻을 같이 하는 동지 장응규(張應圭)·여준현(呂駿鉉)·안중운·심영택·조경준(趙景俊)·소진형(蘇鎭亨)·이철구(李哲求)·신석환(申奭煥)·정인석(鄭寅錫)·이규승(李奎承) 등과 항상 국권회복을 모의하였고, 광복회(光復會)와 연계된 활동을 하였다.

주비단은 3·1운동 직후 상하이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이에 대한 원조·연락을 통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목표를 정하였다. 이는 일제의 감시를 피해 지속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비밀결사에 의한 독립운동단체의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안중운 등은 경영난으로 폐간 직전에 있던 경성신문사(京城新聞社)를 매수하였다.

이들은 겉으로 신문사 경영을 표방하였으나 실제로 이곳을 근거로 한 비밀결사단체를 조직하고자 하였다. 자금은 이민식 자신이 7천 원, 안중운 5천 원, 김포의 이규동이 7천 원을 출자하였다. 이민식 등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장응규를 파견하여 그곳의 활동 상황을 시찰한 연후에 활동 방향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장응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여운형(呂運亨)과 친척 관계인 여준현의 소개장과 여비 300원 등을 휴대하고 출발하였다. 장응규는 진남포(鎭南浦)에서 상하이로 건너가 여운형·서병호(徐丙浩) 등을 만나 독립운동에 대한 방략을 의논하고 임시정부의 활동 상황을 시찰한 뒤 동년 6월 상순경 돌아왔다. 그는

「주비단규칙」·「적십자규칙(赤十字規則)」·『국민공보(國民公報)』·『신한청년(新韓靑年)』 등의 문서·신문을 은닉하고 돌아왔다. 같은 달 이들은 주비단규칙에 의거하여 비밀결사 조직을 결성하였다. 주비단의 간부구성은 사령장 심영택, 부사령장 안중운, 참모장 이민식, 재무부장 여준현, 교통부장 장응규 등으로 이루어졌다. 얼마 후 조직 개편으로 사령장 이민식, 참모장 신석환, 주비단장 소진형, 서기 등 기타는 이민식 등이 각기 임명한 후 조직과 경과를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에 통보하였다.

주비단의 주요 활동은 군자금 모집이었다. 주비단은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보내온 공채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군자금을 모금하였다. 이들은 단의 기초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군자금 모금을 계획하고 군정서총사령의 인장을 조각하고 활자를 구입하여 주비단장 사령장을 만들어 정석환을 단장에 임명하였다.

주비단은 결성 이전 안중운·이재환(李載煥)·권영만(權寧萬)·김재수(金在洙)·소진형·김도수(金道洙) 등에 의해 6,000원 정도의 군자금을 충남 논산(論山)에서 모금한 바 있었다. 결성 이후에는 방법을 달리하여 임시정부의 공채 모집에 착수하였다. 장응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공채 모집원으로부터 공채증권 1만 원을 위촉받아 김양한(金陽漢) 등의 동지들에게 교부·모금하였으나 겨우 500원을 모금하는데 그쳤다. 이들은 효과적인 군자금의 모금을 위해 적극적인 방법을 채택·실행하기로 하였다. 폭탄을 제조·입수·사용하려다가 경기도에서 이민식이 검거됨으로써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¹⁶⁾

16) 이성우, 「주비단의 조직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제25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03; 이성우, 「주비단을 조직하다」, 『대한광복회 우재롱』, 도서출판 선인, 2019.155~165쪽; 이동연, 「주비단의 결성과 활동」, 『광복회 독립전쟁을 이끈다』(공저), 대구경북연구원·독립운동전신계승사업회, 2021, 120~121쪽.

V. 맺음말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조선총독부의 헌병경찰제 아래에서 국내 독립운동은 불가능하였다. 이에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국외로 망명하여 만주와 연해주를 중심으로 국외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였다. 한국을 강점한 일제는 1919년 8월까지 일본군 현역대장을 조선총독으로 임명하여 총독 아래 행정 담당 정무총감과 치안 담당 경무총감을 두었다. 헌병경찰은 치안업무 이외에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조사하여 혐의자를 색출하여 재판 없이 강제구금하거나 태형, 심지어는 살해할 수 있을 정도였다. 또한 일반 관공서는 물론 학교 교원들에게 제복을 입히고 칼을 차게 하여 위협적인 무단통치를 자행하였다.

일제는 1914년 지방행정구역 전면 개편 이후 191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340~360개 군 체제를 12부 220개로 줄이면서 자치적인 지역단위인 동·리를 대폭 통폐합하여 구장 아래에 두고, 1917년에는 면의 기능 강화, 면장의 90%를 친일인사로 채움으로써 수직적·일원적·일방적 지방지배체제를 완성하였다. 또한 일제는 1910년 6월부터 식민지 체제 확립 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전국적인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여 1918년 완성하였다. 이와 같이 1910년 한국강점 이후 일제 조선총독부는 한민족을 지배하기 위한 수직적, 일원적, 일방적 지배체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다. 1919년 식민지 무단통치체제 구축완료 시점에 3·1운동이 일어났던 것이다.¹⁷⁾

광복회가 결성된 1915년은 일제가 한국 식민지배를 위한 무단통치

17) 이정은, 「3·1운동의 이해」, 『다시 조명해 본 천안학의 이해』, 단국대학교출판부, 2022, 9~14쪽.

시스템 구축에 열을 올리는 시점이었다. 광복회는 결성 목적과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강령을 통해 구체화하였다. 또한 1917년 충청도·강원도·전라도 등 7개 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전국에 여관이나 잡화상(상점)을 설립하여 거점으로 하였다. 광복회 조직은 전국 각도뿐만 아니라 서간도와 북간도까지 확대되었다.

광복회는 1910년대 일제가 헌병경찰제도를 기반으로 폭압적인 무단통치를 펼친 가운데서도 독립운동 세력을 규합하여 일제 식민지 무단통치에 저항하며, 민족의 독립을 꾀한 비밀결사였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식민지 무단통치체제를 강력하게 구축해 가는 시점인 1915년 국내에서 비밀결사 광복회가 조직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광복회에는 의병계열, 계몽운동계열, 유학자, 보통 사람을 포함하여 다양한 신분과 계층이 참가하였다. 이들 광복회 참가자들은 일제의 식민통치를 거부하고 민족의 자주성 회복하여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광복회의 투쟁방략은 암살단·주비단·의열단으로 이어졌고, 더 나아가 만주와 러시아 그리고 국내의 무장독립운동단체로 계승 발전되었다. 또한 광복회가 표방한 공화주의 이념은 대한민국임시정부 나아가 대한민국으로 계승·발전되었다.

참고문헌

- 姜徳相·梶村秀樹, 『現代史資料』 27, みすず書房, 1970.
- 강영심, 「조선국권회복단의 결성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집, 1990.
- 경상북도경찰부, 『고등경찰요사』, 1934
-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 5, 1968.
- _____, 『한국독립운동사』 二, 1965.
- _____,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32, 1997,
- _____,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7·8·9 (국권회복단 I·II·III), 1988·1989.
- 國會圖書館, 『韓國民族運動史料』(三·一運動篇 其一), 1978.
- 권대웅, 「조선국권회복단 연구」, 『민족문화논총』 제9집, 1988.
- _____,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 _____, 「조선국권회복단 연구」, 『민족문화논총』9,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원, 1988.
- 金正明, 『朝鮮獨立運動』 1, 原書房, 1967.
- 김희곤 편, 『박상진자료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0.
-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도산안창호전집』 4, 2000.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1, 1976.
- 박결순, 『독립전쟁론의 선구자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역사공간, 2014.
- 박영석, 「대한광복회연구-박상진제문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 1986.
- 박 환, 「대한광복회에 관한 새로운 사료-의용실기-」, 『한국학보』 44,

1986.

_____, 「대한광복회의 독립운동사적 의의」, 『독립운동의 성지 대구』,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 2020.

변지섭, 『경남독립운동소사』 (상), 1966.

신재홍, 「1910년대 국내에서의 민족운동」, 『한국사』21, 국사편찬위원회, 1976.

亞細亞問題研究所, 『朝鮮研究資料集』, 1983.

윤경로, 「1910년대 독립운동의 동향과 그 특성」,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4.

이동언, 「1910년대 독립운동사 연구 성과와 과제」, 『광복 70년 독립운동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국사편찬위원회, 2016.

이성우, 「광복회연구」, 충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_____, 「주비단의 조직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제25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03.

_____, 『대한광복회 우재롱』, 도서출판 선인, 2019.

이용락, 『3·1독립운동실록』, 3·1동지회, 1969

장석홍, 「광복단결사대와 투쟁노선과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17, 2001.

조동걸, 「대한광복회 연구」, 『한국민족주의의 성립과 독립운동사연구』, 지식산업사, 1989.

_____, 「대한광복회연구」, 『한국사연구』 42, 1983.

_____, 「대한광복회의 결성과 그 선행조직」, 『한국학논총』 5, 1982.

_____, 「대한광복회의 결성과 조직상의 특징」, 『한국근현대사의 이해와 논리』, 지식산업사, 1998.

韓國史料研究所, 『朝鮮統治史料』, 1971.

- 『광복회 100주년 자료집 I · II, (사)대한광복회총사령 고헌박상진의 사추모사업회, 2014.
- 『광복회 독립전쟁을 이끈다』(공저), 대구경북연구원 · 독립운동전신 계승사업회, 2021.

About the Organization and Key Figures of the Korea Liberation Party

– Centered on the Yeongnam and Honam Branches –

Dong-eon Lee*

Abstract

Gangwon-do, and Jeolla-do, and inns and general stores were established across the country as bases. The organization of the Liberation Association expanded not only to national angles but also to Seogando and Bukgando.

The Liberation Association was a secret association that, despite the tyrannical unauthorized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based on the military police system in the 1910s, united independence movement forces to resist the unauthorized rule of colony of Japanese Imperialism and sought national independence.

Keyword: the Korean, Liberation Party, organization, key figures, Park Sangjin, Chagijugung, Lee Byungchan, Korean Liberation Corps, Jubidan

* Research Director, Sunin Institute of History and Culture(E-mail: delee5641@hanmail.net)